

-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성령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 오직 여호와와는 그 성전에 계시니 온 땅은 그 앞에서 잠잠할지니라

제목 : 고아와 과부의 아버지 성경: 신명기 16장 9-12절
(Tag:) 김성훈, 신선미, 신선훈, 영택, 영민

9 일곱 주를 셀지니 곡식에 낫을 대는 첫 날부터 일곱 주를 세어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신16:9-12)

하나님은 명절의 규례에 대해서 말씀하실때는 항상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 대해서 말씀 하셨다.

29 너의 중에 분깃이나 기업이 없는 레위인과 네 성중에 우거하는 객과 및 고아와 과부들로 와서 먹어 배부르게 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의 손으로 하는 범사에 네게 복을 주시리라 (신14:29)

어느 시대이든지 어느 곳이든지, 그곳에는 가난하고 소외당하고 버림받은 자들이 있다. 그들은 꼴찌를 하고, 업수히 여김을 당하며, 왕따를 당한다.

대표적으로 나그네가 있고(동남아 외국인 노동자들), 고아와 과부가 있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고난을 당하고 가난하게 살며 허드렛일을 한다.

약자가 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떤 사람은 이런 약자 계층에서 벗어나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이런 환경을 대물림하기도 한다.

누가 대물림하고, 누가 벗어나는가? 또는 누가 강자였다가 약자가 되기도 하며, 누가 약자였다가 강자가 되기도 하는가? 우리는 그 원

리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다.

가장 바람직하지 못한 사회 구조는 극 소수의 특권계층과 소수의 중간계층, 그리고 대다수는 하층민을 이루는 사회이다. 이슬람처럼.

보편적이지만 이상적이지 않는 구조는 소수의 특권계층, 중간계층, 하층민의 구조가 피라미드식인 경우다.

가장 바람직한 구조라면 다이아몬드식 구조일 것이다. 특권계층과 하층민이 극소수를 차지하고 대다수의 사람들은 중간 계층을 이룬다면 좋다. 그리고 더 이상적이라면, 특권계층과 하층민을 이루는 사람들의 머무는 기간이 짧다면 좋다. 이런 특권과 하층민의 신분이 되물림되지 않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할 수 있다.

오늘 본문 말씀이 바로 그런 사회가 되도록 돕는 말씀이다.

몇 달전에 디즈니네이처에서 ‘몽키 킹덤’이라는 다큐멘터리 영화를 발표하였다. 스리랑카의 밀림지대에 살고 있는 긴꼬리원숭이의 삶에 대한 이야기이다. 하층민 계급 ‘마야’가 나그네 ‘쿠마르’와 몰래 사랑을 하고 어린 아기 원숭이 ‘킵’을 얻게 되는 과정, 전쟁이 일어나 보금자리에서 쫓겨나게되는 과정을 그렸다.

그런데 이처럼 위기에서는 산전수전 다 겪은 ‘마야’의 활약이 대단해진다. 조직 내에서 마야의 역할이 커지면서 점차 마야의 지위가 높아지게 된다. 영화는 서서히 하층민 마야가 특권층이 되어가는 과정을 담아냈다고 볼 수 있다. 조직이 위기를 당하면서 계급이동이 가능해졌다는 이야기이다.

물론 사람의 사회에서는 이보다 계급이동을 하려면 훨씬 더 복잡하고 긴 여정을 걸쳐야 한다. 그래도 변하지 않는 원리는 있다.

세속적 원리와 영적원리가 있다. 세속적 원리는, 잡종번식의 원리와 새로운 환경에 대한 선행학습의 중요성, 기득권이란 그냥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벌어야 하며, 쟁취해야 한다는 것.

보다 성경적이며 영적인 원리를 살펴보자.

10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 칠칠절을 지키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게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먼저 하나님 앞에서 명절을 지켜야 한다.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뜻. 왜냐면 오직 하나님이 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이다.

복이란 하나님께로부터 받는다. 사람들은 대학을 나와야 한다, 인맥이 있어야 한다, 부모를 잘 만나야 한다, 원만한 인간관계가 중요하다는 등 여러 가지 조언을 한다. 모두 일리가 있는 말들이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결코 소홀히 하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 앞에서 계명을 지키는 것이다. 명절을 하나님 앞에서 지켜야 한다는 말씀의 뜻도 마찬가지다. 하나님이 명절의 주인공이시다. 누가 날을 복되게 하며 기념하게 하며 그 기념하는 날 누구를 기릴 것인가? 바로 하나님이 아니신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 대로

-네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라. (복된 예물의 기준이 됨)

11 너와 네 자녀와 노비와 네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가 함께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물론 약자라고 해서, 나그네라고 해서 모두 선하거나 앞으로 계급상승 일순위에 속한 사람이라는 뜻은 아니다.

다만 이들에게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무시하지 말아야 한다.

그 가능성을 크게 하려면,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즐거워 하도록 하는 것이 좋다.

즉, 그들의 처지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리고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긍정적이고, 미래지향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

그들은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한 사람들이다.

그들이 하나님께 도움을 청한다면 하나님은 그들에게 더 구체적인 도움을 베푸실 것이다.

정부와 사회는 그들에게 보편적인 온정을 베풀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그들은 악한 자들이 될 가능성이 커진다. 그렇게 되면 사회는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게 되며, 더 불행한 사건들이 많아지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들은 구조적으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되는 위치에 있으니, 성경은 그들을 구조적으로 돌보도록 계시하신 것이다.

개인적으로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12 너는 애굽에서 종 되었던 것을 기억하고 이 규례를 지켜 행할지니라
그리고 누구나 할 것 없이 자신의 처지를 겸손하게 여겨야 한다.

<찬양예배>

제목 : 성경: (Tag:)